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ne 2025 Issue | Vol. 36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하원, **200페소** 임금 인상 법안 승인
— page 1-2
- **2025년**, 필리핀 성장 목표 달성
어려울 수도 — **OECD** — page 2-3
- **BSP**가 이제 은행 계좌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다 — page 3-4
- 필리핀, 선박 운임 안정세 전망...
주변국은 인상 직면 — page 4-5
- 경제구역 **1~5월** 투자 승인, 전년
대비 **80%** 증가 — **PEZA** — page 5
-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전력망은
잠재력을 지닌다 — **PIDS** — page 6
- 반도체산업위원회, 기업 환경
개선 및 인재 개발 문제 검토 예정
— page 7

하원, **200페소** 임금 인상 법안 승인

June 05, 2025 | Kenneth Christiane L. Basilio | BusinessWorld

하원은 화요일, 민간 부문 근로자에게 전면적으로 200페소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3차 및 최종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다.

하원 의원들은 찬성 171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하원법안 제11376호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1980년대 후반 지역 임금 위원회가 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입법을 통한 임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주게 됐다.

하원은 지난 2월에 해당 법안을 2차 심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지난해 100페소 인상을 담은 대응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하원의 이번 임금 인상 법안 승인 시점은 국회가 6월 13일 최종 폐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다.

법안 통과 이후 발표된 성명에서 필리핀노동조합총연맹(TUCP)은 하원과 상원 지도부에 대해 양원 간 이견이 있는 조항들을 조정하기 위한 양원 합동위원회를 즉각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MEN are seen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in Navotas City, June 22, 2024. — PHILIPPINE STAR/Ryan Baldemor

“상원과 하원의 양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라고 하원의 부의장이자 TUCP(필리핀노동조합총연맹) 파티리스트 의원인 레이몬드 데모크리토 C. 멘도사가 성명에서 밝혔다. “우리는 이미 입법을 통한 임금 인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난 단계이고, 이제는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는 이어 “100페소가 될지 200페소가 될지는 차치하고, 이는 거의 40년 만에 가장 의미 있는 임금 인상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지역 임금 위원회를 통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이 제도가 인상폭이 작고 인상 속도도 느려 생활비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기상 관측소(SWS)의 4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가구의 약 55%가 자신들을 빈곤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5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월 최소 13,797페소, 하루 460페소가 필요하다.

법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생활임금(livable wage)’을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유노동자연맹(FFW)의 회장 호세 소니 G. 마톨라는 법안 통과 전에 밝히며, 이번 조치는 “노동자 친화적이고, 빈곤층 친화적이며, 지역경제 친화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버 메시지를 통해 “입법을 통한 임금 인상은 지역 임금 위원회의 잔돈 수준(barya-barya)의 조정 사이클을 끊는 것”이라며 “전국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생활임금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필리핀사용자총연맹(ECOP) 회장 세르히오 R. 오르티스-루이스 Jr.는 법안 통과 전에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500만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화 통화에서 “입법을 통한 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체 근로자의 10%뿐”이라며 “대다수 근로자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농부, 어민, 트라이시클 및 지프니 운전사, 시장 상인 등이다”라고 말했다.

[Cont. page 2]

하원, 200페소 임금 인상 법안 승인

[Cont. from page 1]

2025년 3월 기준으로 약 5천만 명의 필리핀인이 고용되어 있다고 정부 자료는 밝혔다.

필리핀개발연구원(PIDS)의 선임연구원 존 파울로 R. 리베라는 법안 통과 이전에, “입법을 통한 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버 메시지를 통해 “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이는 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인상 규모와, 단계적 시행 여부 또는 생산성 증가와 병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즉각적인 임금 인상이 기업들로 하여금 인력을 줄이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 감소와 신규 채용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영세 및 중소기업(MSME)은 더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MSME는 필리핀 전체 사업체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고용의 67%를 창출하고 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입법된 임금 인상에 중소기업이 따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될 수도 있다.

오르티스 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이 임금 인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매달 15억 페소가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최대 5천만 페소가 들 수 있다”며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르티스 회장은 “지역 임금 위원회가 매년 임금을 인상하고 있으므로, 입법부는 이들에게 임금 인상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리베라 연구원은 또한 “입법부가 임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역별 접근 방식을 통해 추진한다면, 기업과 노동자 간의 이해관계를 보다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6/05/677229/house-approves-p200-wage-hike-bill/>

2025년, 필리핀 성장 목표 달성 어려울 수도 — OECD

하지만 내년에는 6% 성장률 회복 가능성 보여

June 05, 2025 | Ian Nicolas P. Cigaral | Philippine Daily Inquirer



OECD: Trade war cuts global economic growth outlook

필리핀 마닐라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5년 필리핀이 3년 연속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국들의 경기 둔화와 극심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OECD는 최신 전망에서 올해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평균 5.6%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전망대로 이뤄진다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4년 기록한 5.7%보다 다소 느린 수치가 될 것이다. 동시에 마르코스 행정부가 설정한 6~8% 성장 목표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하지만 OECD는 2026년에는 경제가 6%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목표 미달 성장의 연속 기록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소비는 강한 노동시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견조할 것이며, 투자도 금융 여건 완화와 공공 인프라 지출 증가에 힘입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의 예상보다 큰 경기 둔화는 필리핀 수출 수요 감소와 송금 유입에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3]

2025년, 필리핀 성장 목표 달성 어려울 수도 — OECD

하지만 내년에는 6% 성장률 회복 가능성 보여

[Cont. from page 2]

실망스러운 1분기 실적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5.4% 성장해 시장 예상치를 빗나갔다. 이는 직전 분기 5.3% 성장보다 다소 빠른 수치였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5.9% 성장에는 못 미쳤다.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이 기업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GDP 내 투자 항목인 총자본형성은 3월까지 3개월간 4% 성장해, 직전 분기의 5.5%에서 둔화됐다.

현재로서는,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투자를 촉진해 전체 경제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다.

통화 완화 정책

OECD는 현재 진행 중인 통화 정책 완화가 느린 재정 건전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질 GDP가 추세 이하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기대가 유지됨에 따라, 2025년 동안 정책 금리를 2026년 하반기 약 4.755% 수준의 보다 중립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완화 사이클을 계속 이어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반적인 거시경제 정책 조합은 재정 건전성과 글로벌 역풍 속 성장 지원 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29120/ph-may-miss-growth-goal-this-2025-oecd](https://business.inquirer.net/529120/ph-may-miss-growth-goal-this-2025-oecd)

BSP가 이제 은행 계좌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다

June 04, 2025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필리핀 마닐라 — 방코 센트랄 은 필리피나스(BSP)는 이제 은행 비밀 유지법이나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고 금융 계좌 정보를 열람하고 공유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는 반(反) 금융 계좌 사기법(Anti-Financial Account Scamming Act, AFASA)에 따른 BSP의 조사 권한 확대의 일환이다.

BSP는 순환문서 1214호를 통해 소비자 계좌 보호국(CAPO)이 피싱, 머니 물링, 사회공학 기법을 포함한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 전자지갑 또는 기타 금융 계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규정했다.

“공화국 법률 제1405호(수정된 은행 예금 비밀 유지법), 제6426호(수정된 필리핀 외화 예금법), 제8367호(1997년 개정된 비상장 저축 및 대출 협회법), 그리고 제10173호(2012년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는 BSP의 조사 및 문의 대상인 금융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순환문서는 명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CAPO는 관련 정부 기관이나 법 집행 기관과 같은 권한 있는 기관이 선서 진술서와 거래 기록을 첨부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하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BSP는 금융 기관에 모든 관련 계좌 문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조사 명령을 발부하며, 계좌 소유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AFASA 제12조 및 제14조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누설하는 사람은 형사 및 행정 책임을 지게 된다”고 BSP는 밝혔다.

안전한 정보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요청 기관과 BSP는 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협약에는 암호화, 감사 추적, 제한된 접근 권한 등 엄격한 기밀 유지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전송 전에 반드시 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Cont. page 4]



In Circular 1214, the BSP laid down formal procedures that allow its Consumer Account Protection Office (CAPO) to conduct an inquiry into bank, e-wallet or other financial accounts suspected of being used in scams including phishing, money muling and social engineering schemes.

BSP가 이제 은행 계좌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다*[Cont. from page 3]*

CAPO는 자체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사이버범죄예방법(Cybercrime Prevention Act)에 따라 사이버범죄 영장이나 보존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기관들은 CAPO 조사와 관련된 모든 서신 교환에 사용할 공식 이메일 계정을 최대 세 개까지 등록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이메일 주소에서 제출된 자료는 접수되지 않는다.

BSP는 “CAPO가 기관의 등록된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모든 이메일은 정당하게 수신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혀, 금융 기관들이 자신들의 이메일 채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해당 순환문서는 공표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6/04/2447979/bsp-may-now-access-share-bank-accounts>

필리핀, 선박 운임 안정세 전망... 주변국은 인상 직면

June 05,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글로벌 물류업체 디머코(Dimerco)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6월에도 안정적인 해상 운임이 예상되는 반면,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특히 미국행 화물에 대해 운임 상승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시적인 관세 중단 종료 전에 긴급 배송이 증가한 데 따른 현상이다.

디머코가 발간한 2025년 6월 아시아태평양 화물 보고서에서는 “3분기를 앞두고 선적이 증가함에 따라 6월에는 운임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물류업체 디머코(Dimerco)의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필리핀의 해상 운임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베트남·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이웃 국가들은 특히 미국행 화물에 대해 운임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관세 일시 중단 종료 전에 긴급 선적이 증가한 데 따른 현상이다.

디머코가 발간한 2025년 6월 아시아태평양 화물 보고서에서는 “3분기를 앞두고 선적이 증가함에 따라 6월에는 운임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필리핀의 우기 시작과 잠재적인 태풍 발생이 선박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머코는 “항만 운영은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혼잡 현상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상 운임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필리핀 내 정치적 상황이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 선거가 종료되었으며, 부통령 탄핵이 입법 의제로 포함되었다. 정치적 상황이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디머코는 전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도표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아시아, 유럽,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 및 해상 운임은 6월 동안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행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관세 중단 종료 전 선적 급증”으로 인해 6월 미국행 항공 운임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베트남의 해상 운임에 대해서는 “관세를 앞두고 선적을 앞당기면서 미국행 운임이 상승하고 있다”며 “중국발 화물이 미국행으로 물리면서 베트남발 공간도 부족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디머코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하로 인해 더 많은 화물이 싱가포르를 통한 환적 경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선적 공간이 부족해지고, 6월에는 운임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태국의 항공 운임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일부 고객들이 잠재적인 미국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선적을 앞당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머코의 화물 보고서는 태국의 해상 운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미국 및 캐나다행 해상 운임은 약 5% 상승할 수 있으며, 유럽행 운임은 50%까지 상승할 수 있다.” *[Cont. page 5]*

필리핀, 선박 운임 안정세 전망... 주변국은 인상 직면

[Cont. from page 4]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유럽 및 미국 노선에서 해상 운임이 상승 중”이라고 전했다..

디머코 익스프레스 그룹의 글로벌 영업·마케팅 부문 부사장 캐시 리우(Kathy Liu)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5월 12일부터 미국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화물은 해상 운송을 통해 예약되고 있으며, 항공 운송 수요는 6월 중순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mage credits: Thattaphon Sukborwornophat | Dreamstime.com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6/05/phl-to-see-stable-shipping-rates-neighbors-face-hikes/>

경제구역 1~5월 투자 승인, 전년 대비 80% 증가 — PEZA

June 04, 2025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102개 프로젝트, 29,337개 일자리 창출 및 10억 달러 수출 예상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은 2025년 첫 5개월 동안 660억 페소 규모의 프로젝트 투자 약속을 승인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368억 3천만 페소 대비 80%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투자 약속 금액은 102개의 신규 및 확장 프로젝트에 할당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들은 가동되면 29,33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10억 달러의 수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5월의 프로젝트 승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PEZA(필리핀 경제구역청) 사무총장 테레소 판가는 승인 증가의 원인으로 최근 통과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회복 및 세금 인센티브 법안(CREATE MORE)’을 꼽았다. 이 법안은 투자자들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판가 사무총장은 “최근 PEZA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신속하게 절차를 마치고 이들 기업을 새로운 입주자로 환영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현재 협상 중인 미국 관세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정부는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필리핀에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China+1+1’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월부터 5월까지 승인된 102개 프로젝트 중 제조업이 41개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기술-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 분야가 32개, 내수 지향 기업과 경제구역 개발 프로젝트, 시설 기업이 각각 8개씩, 공공서비스 분야가 4개였다.

5개월간 승인된 660억 페소 규모의 프로젝트 투자 약속 중 498억 1천만 페소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할당되었다고 PEZA는 밝혔다.

PEZ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1월부터 5월까지 승인된 투자 중 16.12%를 차지하며 투자 국적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 외 주요 투자국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가 있었다.

승인된 투자 중 식음료 부문이 43.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경제구역 개발 32.52%, IT-BPM 7.59% 순이었다. 전자 제조 서비스(3.56%), 반도체 제조 서비스(1.43%), 자동차(1.43%) 분야도 꾸준한 투자 활동을 보였다.

프로젝트 수 기준 주요 지역은 제4지역(50개), 제7지역(16개), 수도권(14개), 제3지역(13개)이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ecozone-jan-may-investment-approvals-rise-80-on-yr-peza/>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전력망은 잠재력을 지닌다 — PIDS

June 05, 2025 | Gabriell Christel Galang | Manila Bulletin



국영 싱크탱크인 필리핀 개발연구소(PIDS)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전력망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년간 이어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IDS 선임연구원 아도라시온 나바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녀는 ASEAN 에너지 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간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는 에너지 거래와 인프라 투자에 관한 다자간 협정의 성공 사례로 초기 성과를 거두고 있어, 이러한 이유로 회의론은 결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나바로 연구원은 마닐라 불레틴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참여하게 될 동부 지역, 즉 BIMP-PIP(브루나이 다루살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전력 통합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BIMP 에너지 이니셔티브는 네 개 국가의 전력망을 연결하여 국경 간 전력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 전력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BIMP 동아세안 성장지역(BIMP-EAGA) 내에서 “더 큰 시너지, 혁신, 그리고 정치적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전력망 상호연결, 무역, 투자, 관광,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및 교육 교류 등 주요 경제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참여국들이 직면한 현실에 따라 투자 시기와 투자 성격 또는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타당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바로는 말했습니다.

PIDS 선임연구원은 초기 ASEAN 전력망 연결 계획을 회상하며, 처음에는 남부 민다나오가 잠재적 연결 지점으로 고려되었으나 이후 팔라완이 또 다른 유망한 옵션으로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라완의 재생에너지(신재생 에너지) 잠재력을 수요와 비교해 보면, 그 바람 에너지 잠재력이 에너지 수요의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순수출국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하며 더 많은 태양광과 수력 발전 용량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국가와의 상호 연결을 위한 준비 작업 중 일부는 팔라완 내 송전망 업그레이드입니다.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스템에 대한 정책 환경도 마련되어야 하며, 전력산업개혁법(EPIRA) 개정 노력이 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고 나바로는 덧붙였습니다.

작년 12월, 에너지 규제위원회(ERC)를 강화하기 위한 상원 법안에 관한 논평에서 PIDS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스마트 분배망, 전기 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등 청정 에너지 기술 도입을 강제할 수 있도록 위원회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스템에 대한 정책 환경도 마련되어야 하며, EPIRA 개정 노력이 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또한 해저 케이블 보호 구역이나 보호 통로, 해저 횡단 협약, 모니터링, 규제 체계, 책임 규정에 관한 정책의 존재,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라고 그녀는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나바로는 에너지 부문의 규칙과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도 강조하며, 이는 팔라완의 잠재적 전력망 연결이나 BIMP 프로젝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5/06/05/despite-skepticism-asean-power-grid-has-potentialpids>

반도체산업위원회, 기업 환경 개선 및 인재 개발 문제 검토 예정

June 04,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반도체 및 전자 산업 자문위원회(SEIAC)는 기업 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및 경제 업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자 위원회 의장인 프레드릭 D. 고(Frederick D. Go) 비서관은 “SEIAC는 업계 관계자들의 문제와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고 비서관은 “위원회는 조립, 검사, 포장(ATP) 산업의 기업 환경 개선과 집적회로(IC) 설계 산업을 위한 인재 양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EIAC는 기술교육훈련청(TESDA)과 고등교육위원회(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가 교육, 재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집적회로(IC) 설계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조립, 검사, 포장(ATP)뿐만 아니라 전자 제조 서비스(EMS) 부문을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또한 2030년까지 필리핀을 7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400억 달러 규모의 전자제품 조립,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C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 제31호를 통해 설립된 SEIAC는 반도체 및 전자 산업의 발전, 홍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6월 2일 회의에서 위원회는 투자 및 사업 환경, 인재 개발 및 교육, 인프라 및 클러스터 개발에 중점을 둔 세 개의 기술 작업 그룹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이 그룹들은 산업통상자원부(DTI), TESDA, 기지전환개발청(Bases Conversion and Development Authority)과 같은 정부 기관과 산업 및 학계 대표가 공동으로 이끌 것입니다,”라고 SEIAC는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임명을 기다리는 민간 부문 대표 후보를 추천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 설립 외에도, 행정명령은 DTI에 필리핀 반도체 및 전자 산업 로드맵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여, 국가 반도체 및 전자 산업 성장을 가속화하는 프레임워크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DTI에 따르면, 2030년 필리핀 반도체 및 전자 산업 로드맵은 아직 최종 조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6/04/677246/semiconductor-industry-council-to-look-into-ease-of-doing-business-talent-devt-iss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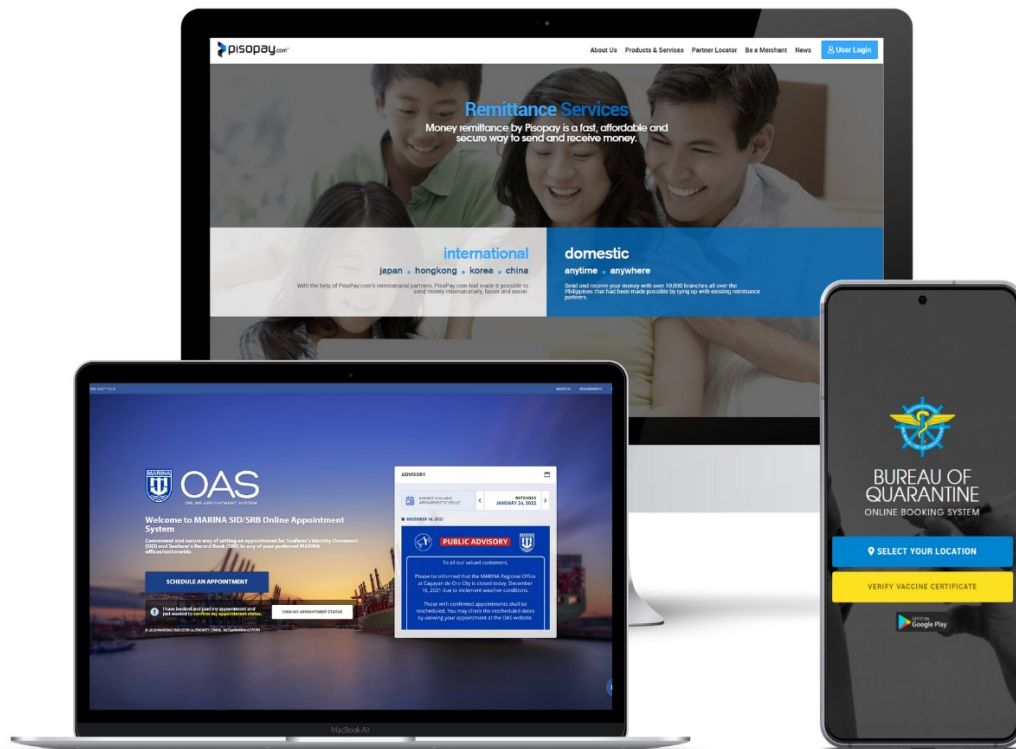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